

근대인물 문화재 가치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268호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
한광식* · 강석훈**

A Study on Storytelling for Value-Cre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Figures

- Focusing on Case of Choi Sunu House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268 in Seoul -

Kwang Sik Han* · Seok Hoon Kang**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등록문화재 268호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하여 근대인물 문화재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인물사와 문화재를 연계로 한 스토리텔링의 기초검토와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의 문화콘텐츠 가치 분석 결과, 미술사학자 최순우의 미학사상이 옛집의 공간(사랑방·뒤뜰)과 유물(현판·예술품·전통수목)에 핵심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제시한 스토리텔링 작성 5단계 즉, 취지 알리기, 인물 소개하기,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 기법을 통해 '최순우의 한국미(美)를 통해 본 옛집'의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나아가 보존주체인 내셔널트러스트 시민단체의 역사계승운동을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로 주목하여 스토리텔링에 반영, 이를 대중의 자발적 보존활동의 유도기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 문화재 사례를 통해 근대인물의 특징과 문화재의 문화콘텐츠 가치의 상관성을 효과적으로 추출한 점 그리고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해당 문화재의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 점에 있다.

주제어 : 등록문화재, 스토리텔링, 최순우 옛집,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성북동

ABSTRACT : This study presented the basic review and writing measures of storytelling which is linked to history of figures and cultural properties with a purpose of value creation for cultural properties of modern figure based on the case of Choi Sunu House as Seoul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268.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ultural properties, we understood that art historian Choi Sunu's aesthetic ideology was essentially reflected in space and artifacts. Through five stages of writing storytelling presented in this writing, we created the image of 'Choi Sunu's House viewed through Korean aesthetics'. Furthermore, noticing the history inheritance movement by a civil organization, National Trust which is a main agent of preservation as a modern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we reflected this in storytelling while establishing this as a inductive mechanism of voluntary preservation activities by the public.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o effectively extrac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odern figure's characteristics and the cultural contents of cultural property, and to create original

* 김포대학 e-비즈니스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business, Kimpo College)

**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Researcher, Seoul Museum of History), 교신저자(E-mail: kangyoo24@hanmail.net, Tel: 02-380-3721)

image of the corresponding cultural property by processing it as storytelling, and to grope for possibilities of new cultural resources through the case of a cultural property.

Key Words :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torytelling, Choi Sunu House, National Trust's movements, Seouguk-dong

I.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공인된 것은 2000년도에 등록문화재법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이후 근대건축물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일면서 보존과 폐기를 둘러싸고 산·학·민·관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95년 8월 15일에 시행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건이다. 근대건축물을 두고 '일제 잔재문화의 청산'이라는 입장과 '근대 역사의 보고'라는 또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과연 근대건축물이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재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우선적으로 근대문화재 보존의 법적근거부터 마련하고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문화유산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향후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만 총 64개의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되었으며, 이 가운데 근대인물이 활동했던 거주공간과 예술작업실이 상당수 발굴되어 법적인 보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근대인물의 생애사가 반영되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근대시기 건축물로서의 물리

적 근거뿐 아니라 인물의 삶과 철학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역사적 근거를 내재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근대인물이 가진 업적과 일화,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대중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문화자원으로서 가치창출을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근대인물 문화재¹⁾는 보존의 당위성과 활용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히려 등록문화재 예고 이후 재산침해를 우려한 실소유주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멸실되거나 설사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도 보존대상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재가 가진 물리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궁극적인 보존과 활용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문화적 텍스트의 정립 문제와 별개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자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강석훈, 2010).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재를 시민향유공간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재는 오늘날 대중에게 고유

1) 현재까지 학계에서 근대인물이 거주했던 건축물을 초점에 두고 정의내린 명칭이 부재한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근대시대의 유명인물이 거주한 건축문화재'의 의미로 '근대인물 문화재'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의 정체성으로 특정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가치창출을 통해 대중과 지역사회가 문화적·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근대인물 문화재의 가치창출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싸고 스토리, 스토리텔러, 관광객 3자가 상호 교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고리로 기능한다. 즉, 유형문화재에 무형문화로서 잘 갖추어진 시나리오를 입혀 대중에게 근대인물 문화재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궁극적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필자는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등록문화재 268호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하여 근대인물사와 문화재를 연계로 한 스토리텔링의 기초검토와 작성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순우 옛집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곳으로, 미술사학자 최순우(1916~1984)가 말년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업적을 남긴 곳이다. 이곳은 최순우의 한국 미학사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시민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2002년에 매입하여 '시민문화유산 1호'로 선포하였으며, 2006년에는 서울특별시 등록

문화재 268호로 지정되었다. 2004년 개관 이후 시민 주도 하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재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성공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기초검토와 작성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하여 실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작성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방법론

최근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토리텔링의 연구진척과 이론정립은 시초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어서 그 개념과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스토리텔링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²⁾를 정리해보면, 스토리텔링은 '특정의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story'의 내용적 측면과 'telling'의 기술적 측면을 모두 함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강희(2010a)는 효율적인 문화유산 안내해설 차원에서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실 자체보다 "특정 이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매체와 결합하고, 그 매체와 어울리는 이야기로 가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story'의 내용적 측면보다 'telling'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2) 이인화(2003)는 스토리텔링을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지배적인 담화양식'이라 정의하면서 그 특성으로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복합성을 제시하였다. 최혜실(2006)은 스토리텔링이 'story', 'tell', 'ing'가 결합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성과 현장성, 상호작용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박기수(2006)는 스토리텔링이란 매체환경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고, 스토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말하기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향유를 중점에 둔 것이라고 보았다. 김성리(2006)는 '스토리'는 이야기이고, '텔링'은 매체적 특성과 표현 방법, 기술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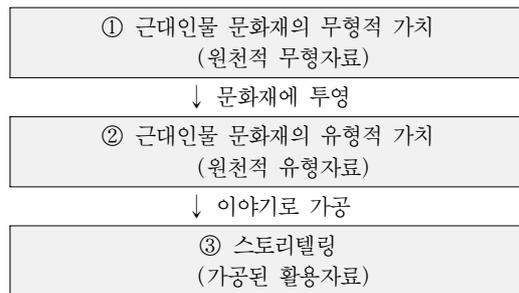
것으로, 문화유산이 충분한 관광 매력물(Tourism attractives)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스토리·스토리텔러·관광객이 상호교섭을 통해 의미체계를 구축해갈 수 있는 기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장성을 바탕으로 둔다고 하였다.

김영순(2007)은 지역향토자산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논하는 가운데 'story'와 'telling'을 동일한 무게중심에 두었다. 첫째, 장소자산의 원형 도출단계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하며 둘째, 원형자산의 배열로 발굴된 소재들을 가지고 장소성과 방문객과의 소통을 고려하여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원형자산의 효과적인 배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소자산 원형 자체의 신중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필자도 '내용'과 '기술'을 병립관계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활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공감대와 흥미를 일으킬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산의 특성상 해당매체에 내재된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어떻게 추출하고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연구는 시론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현장성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의 문화재 사례를 통해 미시적으로 방법론을 고안한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 두 논의에서 언급된 문화유산과 지역향토자산이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이를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장소자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특정의 무형자료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형적 자료로서의 문화재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근대인물 문화재에 연결시켜 본다면 첫째,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원천적 무형자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둘째, 그 핵심을 문화재(원천적 유형 자료)에 투영시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가치의 실재를 추출하고 셋째, 이것을 대중의 공감대를 고려하여 특정의 이야기로 가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무형자료의 특수성을 문화재라는 유형 자료에 입혀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재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³⁾



〈그림 1〉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구성 순서

〈그림 1〉에 제시한 3가지 단계 중 ①과 ②단계는 스토리텔링 작성을 위한 기초검토 단계에 해당한다. ①의 과정에서 인물과 문화재에 얽힌 무형적 자료를 스토리텔링의 취지에 맞게 추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②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유형적 자료를 분별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스토리텔링의 골격과 세부내용이 적절하게 결합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작성자는 기초검토 단계에서 인물과 문화재가 내재하고 있는 세부특성을 면밀하게 조

3) 현재까지 근대인물 문화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스토리텔링 논의는 거의 진전된 바가 없으므로, 필자는 앞서 살핀 스토리텔링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별도의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하고, 향후 스토리텔링에서 추출된 조사내용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가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근대인물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 설정

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가 함의하고 있는 근본적인 무형적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문제이다. 실제 선행된 문화재 스토리텔링 작업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이야기의 수집과 가공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은데 이는 결코 올바른 기획이 아니다. 물론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에 앞서 '문화재를 통해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주제설정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당위성을 정립하는 근본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인물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원천적 무형자료)를 설정한다는 것은, 특정인물의 스토리 중 관광자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문화콘텐츠를 선별하여 구축한다는 것과 같다.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얻는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에 있다(정창권, 2008). 스토리텔링의 첫 단계에서 원천적 무형자료의 내용적 틀을 확실하게 규정지어 두어야만 향후 문화콘텐츠로서의 다양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 근대인물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는 <표 1>의 내용과 같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역사적 가치란 근대인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인물 특성이 역사적 가치

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의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까지나 한 인물이 거주함으로써 발생한 문화적 특수성에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대상으로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위치와 주요 업적을 고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작업으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인물이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활동을 했다면 스토리텔링 단계에 덧붙여 대중의 흡인력을 높일 수 있다.

<표 1> 근대인물 문화재의 무형적 가치 설정

검토항목	검토사항
역사적 가치 (근대인물의 특성)	인물의 역사적 위치와 맥락
	인물의 주요 업적
	인물의 대중적 활동
	인물의 관념과 사상
현대적 가치 (보존·계승활동)	문화재 보존주체의 노력
	대중의 실제적인 문화재 보존활동 참여
출처: 필자 작성	

근대인물 특성 중 관념과 사상을 검토하는 작업은 앞 장의 <그림 1>에 제시한 '근대인물 문화재의 유형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면 된다. 해당인물이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수록 문화재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체의 수는 그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관념과 사상이 담긴 매체가 많을수록 이야기의 짜임새가 건설해지고 그에 따라 대중의 공감대도 얻기가 용이해진다. <표 1>에 제시한 인물특성의 4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을 때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토리텔러의 호소력은 올라간다.

근대인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검토가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대적 가치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문화재 활동을 통한 대중의 참여와 유대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적 가치의 관건은 대중에게 보존주체가 특정 문화재의 보존·계승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실제성을 보여주는 작업에 달려 있다. 이 실제성을 대중에게 잘 전달한다면 그들의 참여의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이 보존활동과 관련한 문화행사에 참여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접근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근대인물 문화재의 유형적 가치 검토

본 단계는 앞서 검토한 무형자료의 특성이 문화재 내부의 유형자료에서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검토항목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인물이 선택한 거주지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둘째, 인물의 사상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셋째,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유물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이다. 이렇게 특정 인물과 문화재가 맺고 있는 관계를 구조, 구조 속의 공간, 공간 속의 유물 순으로 좁혀 들어가면 검토자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3가지 검토단계를 <표 2> 내용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근대인물 문화재의 형성배경·구조에서 주력해야 할 검토내용은 문화재가 맺고 있는 삼자구조 즉, 인물, 지역사회, 시대상의 관계이다. 건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역사회 주거지와와의 비교고찰, 지역사회 인맥과 거주경위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시대-지역사회-문화재가 유기적인 위치선상

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은 문화재의 건축시기와 인물의 거주시기가 일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해당 문화재가 건축된 후에 인물이 입주한 것이라면 문화재의 건축시기와 인물의 거주시기를 비교해가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근대인물 문화재의 유형적 가치 검토

검토항목	검토사항	검토내용
문화재 형성배경·구조	건축시기와 배경	인물, 지역사회, 시대상의 관계
	거주시기와 배경	인물의 사상, 인맥, 지역사회 관계
	문화재의 위치·구조	인물, 지역사회, 구조와의 관계
문화재 공간구성	공간의 기초구성	문화재 공간의 기본적인 개관
	공간의 핵심구성	역사적 가치 반영 (인물의 사상과 생활상) 현대적 가치 반영 (보존주체의 활동내용)
문화재 유물실태	역사적 가치 반영	유물에 반영된 인물의 사상과 인간관계
	현대적 가치 반영	유물에 반영된 문화재 복원내용

출처: 필자 작성

문화재 공간구성에서 주력할 점은 공간에 담긴 인물의 핵심사항을 추출해 내는 일이다.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내용을 접하는 대중에 대한 인포메이션 전달을 넘어 문화재가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이야기(story)를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 (장미영 외, 2007).⁴⁾ 따라서 모든 공간을 동일선

4) 장미영 외(2007)에 따르면 인포메이션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상에 두고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역사적·현대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이 무엇인지 짚어줄 필요가 있다.

문화재 유물실태 단계에서는 문화재에 반영된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어떤 유물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유물에서 인물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유물과 그것과 결합할 수 있는 부수적 유물들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가령 인물의 친필이 담긴 특정유물을 통해 그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상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소장품들인 문방사우, 가구, 예술품, 수목(樹木), 생활물품과 같은 증거물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공간 내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유물과 그것과 연결선상에 놓인 유물을 유기적으로 설명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가치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문화재 내부의 유물 복원내용도 스토리텔링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보존주체는 문화재 복원활동의 과정을 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문화재 보존과 후원 참여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내부의 유물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함께 검증해 낸다면 대중에게 문화재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정례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의 작성

스토리텔링의 작성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재의 기초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주제

구분에 따라 순차적인 스토리로 구성해 나아가도록 한다. 스토리의 목적과 주제 사이의 유기성이 뚜렷해야만 듣는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당위성, 문화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 3>에 제시한 스토리텔링 작성과정을 살펴보자.

<표 3>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의 작성

주제구분	주제구분에 따른 목적	주제구분에 따른 작성순서
① 취지 알리기	목적 전달과 흥미 유도	인물, 문화재, 문화재 보존주체의 기본 소개
② 인물 소개하기	인물의 역사적 가치 전달	인물의 업적과 사상
③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인물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 전달	인물의 문화재 거주 경위 문화재의 보존가치
④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물의 고유 특징의 실제
⑤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부각을 통한 보존 활동과 후원 유도	역사적 가치계승의 실제 역사적 가치계승의 참여 유도

출처: 필자 작성

첫 번째, 스토리의 취지를 밝히는 단계이다. 근대인물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 단계로, ‘문화재에 기거한 근대인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인물의 특성이 문화재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인물 문화재를 보존·계승하는 보존주체의 노력은 무엇인가?’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 첫 소개에서 이야기의 목적을 명확하

를 통해서 성립한다. 반면 스토리는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나 화자를 형상화하고, 바로 그 형상화된 인물을 통해 발신자의 상상을 표현한다. 즉, 스토리는 수신자의 정서적인 충만함을 지향하게 된다.

게 밝혀두면 향후 진행될 스토리텔링의 이해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인물 소개하기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인물의 역사적 가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인물 소개가 지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토리 화두에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의 대표적인 활동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⁵⁾ 가령 특정 인물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거나 특징의 유명저서를 썼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 순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서는 인물의 역사적 위치, 주요 업적, 대중적 활동, 사상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핵심 사항만 추려 설명하도록 한다.

세 번째,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단계이다. 문화재의 세부사항을 언급하기에 앞서 인물과 문화재가 맺고 있는 연관성을 명확히 짚으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물의 문화재 거주경위를 밝히고, 인물의 거주에 따라 문화재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문화재의 세부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함에 앞서 보존가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스토리의 관계성을 생각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단계이다. 앞서 언급했던 문화재에 반영된 가치의 실재를 스토리로 풀어내는 과정으로, 진행 단계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문화재의 세부설명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대중에게 '인물의 눈'으로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특유의 분위기와 감상이다(한국관광공사, 2006).⁶⁾ 이 단계에서는 인물 생전에 그가 이 집에 대해 생각했던 내용들과 문화재의 특정 부분을 연관 지어서 대중이 인물의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 단계이다. 앞서 대중에게 '인물의 눈'으로 문화재를 보여주어 공감대를 확보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그 대중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후원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리텔링의 궁극적인 취지가 담긴 마지막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존주체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이 그 계승운동에 참여할 경우 어떠한 문화체험과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지 제시해주어야 한다.

III. 최순우 옛집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검토

1. 최순우 옛집의 무형적 가치 설정

인물 최순우의 핵심사항은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미(美)를 꿰뚫어보는 심미안의 소유자로 회자되었다는 점, 그

5) 이인화(2003)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스토리는 향유자 중심으로 전개된다. 향유자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이야기를 선호한다. 문화산업에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당대의 현상을 고수하거나 강화하는 스토리가 성공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토리의 전개는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스토리 전개의 이면에는 어떤 공동체의 다수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어떤 맥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6) 한국관광공사(2006)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 추구하는 것은 사전에 상상 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특정한 스토리에 따라 자신들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역할놀이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해진 역할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관광지는 관광객이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 최순우 옛집의 역사적 가치(인물 특성)

검토사항	검토 주요특징	검토 세부내용
인물의 역사적 위치와 맥락	한국미술사의 중요한 맥락을 잇는 주요인물	· 우현 고유섭 ⇒ 간송 전형필 ⇒ 해곡 최순우 · 미술사학의 '개성 삼걸(三傑)'(최순우, 진홍섭, 황수영)
인물의 주요 업적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한국 박물관계에 공헌함.	· 한국미술 2천년展, 한국미술 5천년展의 개최를 통해 미국·유럽·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국미(美)의 아름다움을 알림.
인물의 대중적 활동	한국미(美)를 담은 글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 미술평론집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인문고전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최순우 옛집에서 집필) · 수필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최순우 옛집에서 집필)
인물의 관념과 사상	한국미(美)적 사상을 생활에서 직접 실천한 인물	· 익살의 아름다움
		· 은근의 아름다움
		· 순리(順理)의 아름다움
		· 백색의 아름다움
		· 담조(淡調)의 아름다움
· 추상의 아름다움		

출처: 문화재청, 2008, 『최순우 옛집 기록화조사보고서』

리고 한국미적 사상을 생활상에서 직접 실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물의 역사적 가치를 대표하는 특징은 '최순우의 한국미'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역사적 가치의 4가지 검토사항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순우(1916~1984)는 송도보통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인 스승 고유섭 선생을 사사하였고 당대 미술사학의 '개성

삼걸(三傑)'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우현 고유섭, 간송 전형필로 이어지는 한국 미술사학 계보의 중요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서, 한국미 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순우라는 인물이 근대 미술사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스토리텔링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는 미술사학자이면서도 평생을 박물관인으로

<표 5> 최순우가 본 한국미의 주요 특징

한국미의 주요 특징	세부내용
익살의 아름다움	거드름도 잔꾀도 모르며 어쭙고 익살스러운 한국인의 선천적 즐거움이 미술에 반영된 것
은근의 아름다움	무기교의 기교가 반영된 것으로 헤벌어지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번쩍이지도 않는 그리고 호들갑스럽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아름다움
순리(順理)의 아름다움	자연 환경이나 자연의 태도에 가장 알맞은 형질미를 가늠할 줄 아는 분수에 맞는 아름다움
백색의 아름다움	한국미의 본바탕에는 한국의 폭넓은 흰빛의 세계와 형언하기 힘든 부정형의 원이 그려주는 무심스러운 아름다움이 담겨 있음.
담조(淡調)의 아름다움	얹고 담담한 색조의 아름다움으로 수다스럽지 않고 성정이 숨김없는 한국인의 담담한 마음씨에서 우러나는 특징이 있음.
추상의 아름다움	우리의 전통 속에는 어디서나 추상의 아름다움이 숨쉬고 있는데 이는 우리 선조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추상의 미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임.

출처: 심영옥, 1998, "최순우의 한국미적 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01~105

〈표 6〉 최순우 옛집의 현대적 가치(보존·계승활동)

검토사항	검토내용
문화재 보존주체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여년 역사의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계승한 범시민적 자연·문화유산 보존운동 (현재 문화유산 3곳, 자연유산 4곳 확보) · 재개발 위기에 처해 있는 최순우 옛집을 시민 기부와 기금을 통해 매입·보존 · 역사 계승의 차원에서 최순우의 지인과 제자들이 시민운동에 대거 참여, 면밀한 고증을 통해 복원에 성공
대중의 실제적인 문화재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우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한 정례적인 축제와 전시회 개최 · ‘현대인의 문화향유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중 · 자원 활동가의 보존·홍보활동 참여와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중

출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2,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04, 『최순우 옛집』

살아온 인물이다. 1943년 박물관에 처음 입사하여 1984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국보급 문화재의 해외 전시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각지에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위상을 널리 홍보하였다. 또한 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와 박물관 교육체계의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늘날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이렇게 평생을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그의 이미지를 스토리텔링 선상에 부각시키는 한편 오늘날 그의 옛집이 사립박물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연계하여 설명한다면 ‘박물관인의 박물관’이라는 특정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최순우의 역사적 가치 중 대중적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테마는 그의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이다.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바 있는 이 국민적 스테디셀러를 스토리텔링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기획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이 저서와 더불어 그의 수필집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가 최순우 옛집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덧붙여 설명함으

로써 스토리텔링에서 인물-사상-문화재가 일체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최순우가 한국미(美)적 사상을 생활상에서 실천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가치의 검토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한국미의 정수가 최순우 옛집에 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한국미적 사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순우가 규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에 관한 정의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표 6〉에 제시된 최순우 옛집의 현대적 가치를 검토해보자. 오늘날 최순우 옛집의 문화사적 의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관여 없이 시민의 자발적인 모금, 기부를 통해 문화재를 매입·보존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재 보존활동의 근본을 1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에 두고 있는 점은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된다(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2).⁷⁾ 나아가 최순우 옛집의 복원과정에 그의 지인과 제자들이 참여

7)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개발위기에 처해 있는 자연·문화유산을 시민 주도 하에 매입·보존하여 100년 미래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를 가진 운동으로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26개국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이 운동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단체가 창설되었다.

하여 문화재 복원의 수준을 높인 점도 문화재 보존가치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문화재 보존주체의 노력만큼이나 대중의 문화재 보존활동을 독려하는 설명도 중요하다. 대중이 최순우 옛집 안에서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참여의 당위성을 스스로 획득하는 것만큼 향후 가치담보에 유리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활동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스토리텔링 과정에 포함시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2. 최순우 옛집의 유형적 가치 검토

최순우 옛집의 형성배경·구조에서는 성북동의 기본특성과 옛집의 건축특성, 옛집의 선택경위의

3가지 측면을 결합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집의 건축 시기는 1930년대로, 당시 성북동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부호들과 문인들의 별장으로 애용되는 곳이었다. 또한 일제의 도시 확장 계획에 의해 성북동의 서울성곽 북부 일대에 많은 한옥 주거지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때 지어진 집 중 하나에 속한다. 이 집은 트인 'ㄱ'자의 전형적인 도시형 근대한옥으로 경북의 안동·양동 마을의 한옥 구조와는 또 다른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다.

최순우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시기는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하고 2년 후의 일이며, 그는 자신의 말년 시기(1976~1984)를 모두 이 옛집에서 보냈다. 청와대 확장에 따라 궁정동 일대의 거주지가 헐리게 되면서 이사를 감행하게 된 것인

〈표 7〉 최순우 옛집의 유형적 가치 검토

검토항목	검토사항	검토내용		
최순우 옛집의 형성배경·구조	건축시기와 배경	· 사대문 주변의 대표적인 별장지대로 기능 · 1930년대: 경성의 대표적인 문인촌(文人村)		
	거주시기와 배경	· 청와대 확장에 따라 궁정동 자택에서 이사 · 거주기간: 1976년~1984년(68세 작고) · 평소 성북동에 거주하는 예술가·문인들과 잦은 교류 · 선생이 집 매입 후 리모델링 착수(건축가 김수근 참여)		
	문화재의 위치·구조	· 낙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성벽 중턱에 위치 · 트인 'ㄱ'자의 전형적인 도시형 근대한옥(1930년대 건축)		
최순우 옛집의 공간구성	공간의 기초구성	안채	사랑방,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뒤탈마루	
		바깥채	사무실, 다용도실(회의실)	
		뜰	앞뜰, 뒤뜰	
공간의 핵심구성	· 역사적 가치: 사랑방과 뒤뜰(최순우 사상 반영) · 현대적 가치: 바깥채의 사무실, 다용도실(보존주체 노력 반영)			
최순우 옛집의 유물실태	역사적 가치 반영	사랑방	현관	杜門即是深山, 午睡堂, 梅心舍
			창문	'용(用)'자 살창
			사랑방 생활기구	서안, 사랑탁자, 보료, 호박진구, 병풍 등
		바깥채	소품	소방울
			뒤뜰	예술품
	현대적 가치 반영	사랑방	꽃나무	한국 토종수목 및 야생화
			뒤뜰	기증유물 기증석물·수목

출처: 문화재청, 2008, 『최순우 옛집 기록화조사보고서』

데, 그가 성북동에 새로운 거주지를 정한 것은 평소 성북동 일대의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는 이 집을 매입한 후에 자신의 미적 안목에 맞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이 과정에 건축가 김수근을 관여시켜 건축적·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순우 옛집의 공간구성은 안채·바깥채의 건물과 앞뜰·뒤뜰의 외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는 생활공간으로 선생의 서재공간이었던 사랑방, 부인이 기거한 안방, 딸이 기거한 건넌방, 그 외 대청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상설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깥채는 선생의 서고와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던 곳인데, 200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사무실과 문화행사 다용도실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역사적 가치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최순우가 기거했던 사랑방과 그가 손수 꾸민 뒤뜰이다. 사랑방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의 명저가 탄생한 곳일 뿐 아니라 미학적 사상이 담겨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뒤뜰은 수필집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에 등장하는 장소로서, 그가 글에서 표현했던 뒤뜰의 아름다움과 한국정원의 미학이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최순우 옛집의 현대적 가치는 바깥채의 사무실과 다용도실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용도실은 전시실, 문화행사 체험 장소, 자원활동 모임 및 행사 장소로서, 이곳에서 대중을 위한 문화행사와 보존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면 그들의 문화재 보존활동과 후원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공간구성에 관한 검토가 끝났다면 이 부분을 옛집의 유물실태와 연결 지어 살펴보도록 하자.

공간 내 유물실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핵심적인 공간 내에서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물에 주력하도

〈표 8〉 최순우 옛집의 유물실태 세부검토

검토사항	유물위치	유물항목	세부 유물항목	비고
역사적 가치반영	사랑방	현판	杜門即是深山	선생의 친필, 1976년 제작
			午睡堂	선생 호가午睡老人인 점에 착안하여 제작(단원 김홍도 필체)
			梅心舍	선생 지인이 준 선물(추사 김정희 필체)
	창문	'용(用)'자 살창	선생의 미적 사상 반영	
	생활기구	서안, 사방탁자, 보료, 호박전구, 병풍	선생 생전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음.	
	바깥채	소품	소방울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산 물건 2개 중 1개를 간송 선생에게 줌.
뒤뜰	예술품	달 향아리, 괴석	선생의 미적 사상 반영	
		꽃나무	한국 토종수목	선생의 미적 사상 반영
		사방탁자, 보료, 병풍, 문방사우, 그림	기증유물(선생의 제자)	
현대적 가치반영	뜰	문인석, 향아리(일부), 돌화	기증식물(박물관 및 민간기관)	
		청죽, 연꽃	기증식물(선생의 지인)	

출처: 필자의 현장조사 내용

록 한다. 전체 유물 중에서도 최순우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안채의 현판이다. 특히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문을 닫으니 이곳이 깊은 산중)’이라는 선생 친필이 담긴 사랑방의 현판은 그의 미적 사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반영된 유물들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두기에 적절하다.

〈표 8〉에 제시한 유물실태 항목은 최순우의 미적사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각 유물에 담긴 인물 이야기를 추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유물이 위치한 공간성과 유물 간의 연결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사랑방의 오수당(午睡堂)과 ‘용(用)’자 살창, 뒤뜰의 토종수목과 청죽, 달 향아리의 유물들이 개별적인 설명으로 그쳐서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없다. 현판에 담긴 사상이 창문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보고자 했던 뒤뜰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청죽과 달 향아리의 관계에 담긴 미학은 무엇인지를 유기적인 스토리로 풀어간다면 대중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복원과정에서 기증받은 유물들도 스토리텔링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순우 옛집 복원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시민들이 자체적인 노력을 토대로 최순우의 미적사상을 공간상에 구현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사랑방의 경우 최순우 선생의 생전에 찍은 사랑방의 사진들과 지인의 구술을 근거로 그의 지인과 제자들이 그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유물을 기증하여 복원의 내실을 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문화재 복원에 기여한 유물들을 스토리텔링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순우 옛집 보존활동과 후원의 필요성을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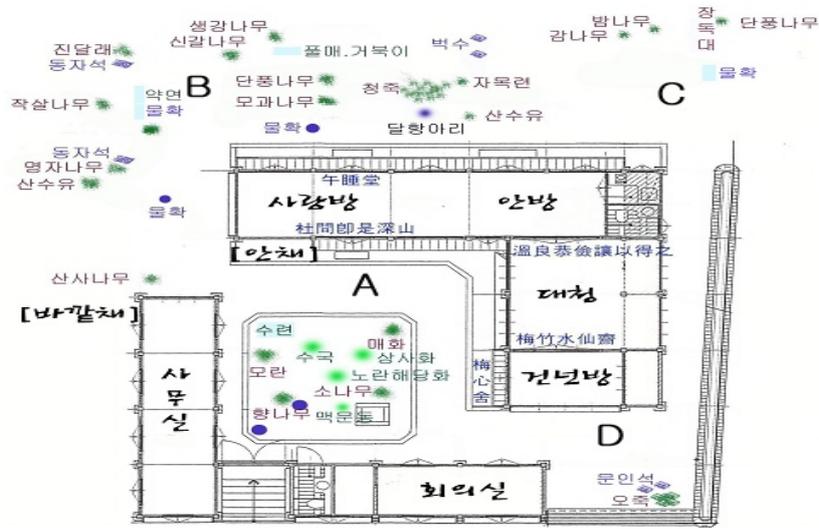
IV. 최순우 옛집 스토리텔링의 작성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최순우 옛집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스토리텔링 작성에 들어갈 도록 하겠다. 문화재 스토리텔링 성공요인의 관점은 기초자료의 특징을 공간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작성자는 스토리텔링 시연과정에서 스토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동선 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최순우 옛집 스토리텔링 공간동선을 A, B, C, D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위 문화재 공간동선 설정을 토대로 II장에서 검토한 스토리텔링 작성 5단계를 적용시켜 스토리텔링의 실제 시나리오를 전개시켜 보겠다.

1. A공간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을 A공간으로 두는 것은, 이 지점이 최순우 옛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취지 알리기(①단계), 인물 소개하기(②단계),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③단계)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취지 전달에서는 최순우의 특징, 옛집의 특징, 내셔널 트러스트 시민단체의 특징을 주축으로 전체 스토리가 진행될 것임을 밝히도록 한다. 또한, 취지 전달 내용에 유명저서인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포함시켜 대중의 공감대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림 2〉 최순우 옛집 스토리텔링의 공간 동선
 [평면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제공(2008)]

〈표 9〉 ①단계: 취지 알리기

이곳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로 유명하신 해곡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1984년 작고하실 때까지 거처하셨던 옛집입니다. 현재 이곳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순우 선생이 어떤 분인지, 선생이 사셨던 이 옛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옛집을 보존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취지 전달에 이어 인물 소개에서는 앞서 III. 1장에서 검토한 인물 최순우의 역사적 가치, 즉 미술사학자이자 박물관인으로서의 생애와 업적을 중점에 두도록 한다.

〈표 10〉 ②단계: 인물 소개하기(생애와 업적)

해곡 최순우 선생은 1916년에 개성 송도에서 출생하신 분으로, 동시대의 개성 출신자인 황수영, 진홍섭과 더불어 미술사학의 '개성 삼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청년시절 우현 고유섭 선생에게 감화되어 1943년에 개성부립박물관에 입사한 이후 평생을 박물관인으로 사시면서 우리나라 박물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보급 문화재 해외 전시를 통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각지에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경제적·문화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1960~1970년대의 한국사회에 문화선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나아가 인물 최순우의 역사적 가치와 옛집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단계로 진입한다. 여기에서는 최순우 옛집 보존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III. 2장에서 검토한 최순우 옛집의 형성배경·구조의 설명으로 이어나가도록 한다.

〈표 11〉 ③단계: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1(인물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 전달)

보존의 당위성	당대 최고의 심미안이라고 평가받았던 선생은 주옥같은 글로써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그의 저서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최순우 옛집이 높은 보존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곳 사랑방에서 선생의 저서들이 탄생했다는 점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국미의 주요 사상들이 이 집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건축시기와 배경	본래 이 가옥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ㄱ' 모양의 안채와 'ㄴ'자 모양의 바깥채가 맞물린 트인 'ㄷ'자의 도시형 근대한옥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건축양식으로 안동지방의 한옥과는 또 다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시기와 배경	선생은 본래 청와대 옆 궁정동이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청와대 확장공사에 따라 거주지가 수용되면서 이 곳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선생님은 전형필 선생, 김환기 선생 등 성북동에 거주하는 여러 문인, 예술가들과 깊은 교분을 나눈 바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선생의 성북동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인물 '최순우'와 문화재 '옛집'을 연결했다면, 이제부터는 A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옛집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을 옛집의 역사적·현대적 가치와 결합시키면서 풀어가도록 한다.

〈표 12〉 ③단계: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 2(문화재의 보존가치)

공간구성 : 현대적 가치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계시는 이 한옥은 선생께서 이 집으로 오신 후에 그의 안목에 맞게 구성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생의 안목을 빌어 여러분에게 옛집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채 공간부터 보시면 대문 좌측공간은 본래 선생님의 서고로 사용된 곳으로, 현재는 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측공간은 본래 다용도실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현재는 각종 시민행사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채는 선생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는 목적에서 오늘날 새로운 공간적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간구성 : 역사적 가치	안채는 선생님의 사랑방, 부인과 따님이 기거했던 안방과 건넌방, 대청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공간은 선생님의 사랑방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와 수필집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의 글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깥채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시민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랑방을 포함한 안채는 선생 생전의 모습과 그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상설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공간구성 내용을 통해 최순우 옛집의 현대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켰다면, 최순우의 사상이라고 일컬을만한 주요 유물들을 짚어보는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단계'로 넘어간다.

〈표 13〉 ④단계: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1.1 (인물의 고 유적 특징의 실제)

유물상태 : 역사적 가치의 핵심	여러분이 서 계신 사랑방 창가 위를 보시면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최순우 선생의 친필이 직접 담긴 현판으로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풀이하면 ‘문을 닫으니 즉 이곳이 깊은 산중과도 같다’는 뜻으로, 선생이 이 집에 사시면서 품고자 했던 마음이 핵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현판이 대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집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심산의 미(美)를 나누고자 했던 의중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물상태 : 역사적 가치의 반영	도심 한 가운데에서도 산중생활을 누리하고자 했던 선생의 마음은 바깥채 처마에 걸린 소방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프스에 갔을 때 산골 목장에서 방목하는 소의 목에 걸어주는 소방울을 보고 선물로 사와 직접 처마 끝에 걸어두시고서 감상하신 것입니다. 한옥의 멋에 알프스의 심성을 걸어두신 선생의 남다른 미적 안목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직접 가꾸신 뒤뜰로 이동하여 그 분의 안목이 어떻게 집안에 펼쳐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여기서 모든 유물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의 주요 생애와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면서도 스토리 문맥을 적절히 연결해 나아갈 수 있는 유물들을 공간과 동선에 맞게 선별해야 한다. 유물 설명에서도 모든 유물을 나열식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유물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그것과 연관 지어 나머지 유물들을 설명하는

것이 스토리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B·C공간

이 단계는 옛집에 담긴 역사적·현대적 가치를 공간과 유물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B공간에서는 최순우의 생애·사상이 공간과 유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 C공간에서는 보존주체의 최순우 옛집 복원 경위와 진행과정을 전달하도록 한다.

먼저 B공간에서는 안채와 뒤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가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안채와 뒤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치된 유물 간의 유기성과 대중의 시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4〉의 내용과 같이, 현판을 통해 최순우의 사상을 관찰하고, 그 사상에 따른 미적 안목을 창문을 통해 검증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본 뒤뜰의 모습과 최순우의 생각을 접목시킴으로써 대중이 마치 인물 최순우가 되어 옛집을 바라보고 느끼는 효과를 확보한다.

B단계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보존가치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높였다면 다음 C공간에서 풀어나갈 ‘문화재와 관광객 연결하기’ 부분이 더욱 후광을 입을 수 있다. C공간에서는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보존주체의 정체성과 옛집의 복원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최순우 옛집과 주변 빌라단지의 속성을 대조·비교해 가면서 스토리를 전개(소강춘 외, 2009)⁸⁾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소강춘 외(2009)에 따르면 훌륭한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의 속성을 내비칠 때 다른 속성과의 비교·대조를 통해 설득력을 확보한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일반 법칙 등을 고찰함으로써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표 14〉 ④단계: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 1.2 (인물의 고유적 특징의 실제)

유물실태: 오수당 (午睡堂)	안채 뒤편으로는 이처럼 넉넉한 뒤편이 펼쳐져 있어 집의 여유로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집만의 아늑한 분위기를 또 하나의 현판에 표현해주셨습니다. 사랑방에는 오수당 즉, '낮잠자는 집'이라는 의미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선생님의 호가 오수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낮잠자는 노인이 사는 집'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유물실태: '용(用)'자 살 창문	그렇다면 산중의 오수노인이 지닌 심미안이 무엇인가? 선생의 눈은 현판 밑에 펼쳐진 유리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은 쓸 용(用)자를 닮았다 하여 용자 살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미닫이 창살이 정갈하고도 조용할 뿐더러 황금률이 적용된 쾌적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창살이 장식과 문양 면에서 화려하고 날카롭게 발달한 것에 비해, 한국의 창살은 은근하게 둥글고, 알세라 모를세라 모를 죽이면서 후련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선생이 늘 강조하여 왔던 한국인의 순리의 아름다움이 이 창문양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물실태: 뒤편	창문을 통해 선생이 감상한 뒤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뒤편에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수목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필집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에 나와 있듯이 선생은 잔재주를 부린 인조적인 뜰이나 값진 외국 정원수들로 꾸며진 뜰을 멀리하셨고, 오히려 어디에나 있는 산나뭇들을 자연스럽게 가꾸면서 은근과 순리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습니다.
유물실태: 뒤편의 청죽과 달 항아리	뒤편에 펼쳐진 한국미의 핵심을 꼽는다면 달 항아리와 청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향로석 위에 달 항아리를 올려두시고 그 뒤편 병풍처럼 청죽으로 두르신 후에 이것을 하나의 수목화로서 감상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선생은 이 달 항아리가 한국미의 본바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백색의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극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백색의 아름다움을 은근과 순리의 아름다움이 담긴 뒤편에 녹여내어 집안 전체를 미적 공간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출처: 필자 작성

〈표 15〉 ⑤단계: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 1 (역사적 가치 계승의 실제)

최순우 옛집 보존경위	이 옛집이 존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집 주변을 보시면 모두 빌라들로 둘러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성북동에 빌라 조성 붐이 일면서 옛집이 재개발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선생의 따님이신 최수정 여사께서 영구 보존의사를 밝히고, 이에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자발적인 시민모금을 통해 2002년도에 매입함으로써 최순우 옛집은 내셔널트러스트 시민문화유산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존주체의 정체성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연·문화유산을 시민주도로 영구히 보존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본고장 영국은 1895년부터 지금까지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운동을 전개해왔고, 현재 35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 국토의 1.5% 영역을 시민관할 하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셔널트러스트 단체가 정식 설립된 것은 2002년이며 2010년 현재 국내 자연유산 4곳과 문화유산 3곳을 시민재산으로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주체의 복원활동	본 단체는 최순우 옛집 매입 이후에 선생의 미학사상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약 2년에 걸친 복원공사를 하였습니다. 상한 목재와 벽을 교체하고, 선생 사후에 변모한 한옥의 일부 형태는 선생님 생전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이 집의 핵심공간인 사랑방은 선생님 생전에 찍었던 사진들과 지인의 고증을 바탕으로 유물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랑방 안의 문방사우와 병풍, 보료, 사방탁자는 선생의 지인과 제자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C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주체의 정체성이 범시민적인 공인 하에 성립되었음을 피력하는 것이다. 복원과 보존의 노력이 일부 주변인들

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대중이 오인한다면 그만큼 보존활동 참여에 대한 가능성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순우 옛집의 보존성

과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후원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 과정에서 뚜렷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D공간

D공간은 현재 보존주체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행사와 참여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재와 대중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표 16>의 내용과 같이, 마지막 스토리텔링 순서에서 대중이 보존주체의 활동의의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자발적으로 자원활동과 문화재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진행되고 있는 활동내용들을 최대한 보여주도록 한다.

역사적 가치계승의 참여유도를 D공간에서 하는 이유는 문화행사공간과 사무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깥채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간 내부에서 문화재 보존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화상품과 안내책자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존활동의 참여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

를 남겨두는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러는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대중이 궁금해 하던 사항들에 대해 충실히 답변해줌으로써 스토리텔링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한다.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 시연에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사항은 대중의 관심도이다. 문화재를 방문하는 대중의 특징과 성향에 따라 관심분야와 내용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 단체의 경우 미술사학자 최순우의 삶을 조명하는 부분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한옥의 아름다움을 관람하기 위해 온 것일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보존운동 단체는 문화재 관리·활용현황 견학 차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스토리텔러는 3장에서 검토한 기초자료들을 근거로 방문자의 성향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근대인물 문화재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는 목적은 근대인물과 문화재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을

<표 16> ⑤단계: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 2(역사적 가치 계승의 참여 유도)

보존주체의 문화행사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선생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순우 옛집에서는 매년 봄에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축제에서는 선생과 옛집을 주제로 한 문화해설, 음악회, 전통문화체험 등의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에는 선생의 삶과 교분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예술을 주제로 한 선생과 지인들의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보존활동 참여방법	이곳 문화행사의 묘미는 자원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모든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약 4주 동안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셔널트러스트 자원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의 내용은 시민행사 안내, 문화해설, 문화재 보존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장기 활동가들에 한해서는 문화활동에 따른 통·번역, 성북동 근대문화유산 모니터링 등 전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주체 후원방법	100년의 미래세대에게 이 소중한 시민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한 땀 한 땀 어린 기부와 모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개발 속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영구히 지켜내는 바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뜻 깊은 문화유산 보존·후원활동의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필자 작성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감하는 대중의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문화재 보존·관리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근대인물-문화재-문화재 보존주체 3자 관계를 핵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재에 반영된 역사적 가치를 인식토록 하고, 오늘날 문화재 보존활동의 현대적 가치계승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근대인물 문화재 스토리텔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근대인물의 원천적 특징과 인물이 거주했던 문화재의 특징,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고 있는 보존주체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인 스토리를 이루어 대중에게 소구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268호 최순우 옛집을 사례로 하여, 해당 문화재의 원천적 무형자료를 검토하고 이것이 실제 문화재의 원천적 유형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였다. 스토리텔링 작성 5단계를 최순우 옛집의 공간과 동선에 적용시키면 다음의 결과와 같다.

첫째, ‘취지 알리기’에서는 목적 전달과 흥미 유도를 전제로 최순우, 최순우 옛집, 보존주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대한 기본 소개가 이루어졌다. 둘째, ‘인물 소개하기’에서는 인물의 역사적 가치전달을 전제로 미술사학자이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최순우의 주요 업적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셋째, ‘인물과 문화재 연결하기’에서는 옛집 보존의 당위성 부각을 목적으로 인물 최순우와 그가 기거했던 옛집을 연관 지어 작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최순우의 옛집 거주경위, 옛집 공간에 반영된 역사적 가치(주요 저서의 산실, 최순우 미학의 실천공간)와 현대적 가치(내셔널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한 시민 보존·관리활동)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넷째, ‘인물을 통해 문화재 보기’는 대중이 옛집 내에서 최순우가 구현하고자 했던 생애철학을 그의 관점에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이다. 최순우의 자연미학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랑방의 현판, 소방울, 용(用)자 살창문, 뒤뜰의 한국수목, 수목 가운데 비치된 달 향아리와 청죽(靑竹) 등의 유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가 집안 내에 구축하여 둔 미학의 핵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문화재와 대중 연결하기’는 최순우 옛집의 현대적 가치 부각을 통해 대중의 보존·후원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문화재 내부에서 어떠한 역사적 가치계승이 이루어져 왔고, 대중은 계승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최순우 옛집 매입·복원 경위를 공간과 유물을 통해 보여주고, 시민문화행사와 자원활동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 오늘날 역사계승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하나의 근대인물 문화재를 사례로 한 스토리텔링 작성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 근대인물의 특징과 문화재의 문화콘텐츠 가치의 상관성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추출물을 스토리텔링으로 가공하여 문화재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역사계승에 따른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스토리텔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을 문화재 보존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향유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근대인물 문화재 스

토리텔링 방법이 실제 관광객의 호응과 가치형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강석훈, 2010,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재조명과 새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을 사례로”, 『민속학 연구』 26: 182, 국립민속박물관.
 경남발전연구원, 2008,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김성리, 2006, “동화 ‘엄지공주’를 소재로 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스토리텔링이 있는 장신구”,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순, 2007, “우리 차로 축제 콘텐츠 만들기: 보성 다향제의 스토리텔링”, 『너울』, 81,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2004, 『최순우 옛집』.
 문화재청, 2006,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_____,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 북』.
 _____, 2008, 『최순우 옛집 기록화 조사보고서』.
 박기수,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네 가지 접근법”, 『한국언어문화』 32: 5~26, 한국언어문화학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소강춘·장미영·유지은, 2009,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 글누림.

심영옥, 1998, “최순우의 한국미적 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01~105.
 이인화, 2003,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장미영·류수열·유지은·이수라·이용욱, 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정창권, 2008,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최순우, 2002,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_____, 2008,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최준호, 2009, “근대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연구: 서울시 등록문화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5: 27~34,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최혜실, 2006,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_____, 2007,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할미디어.
 최호진, 2010, “서울 도심지 근대건축물 보전 방안”, 성균관대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강희, 2010a, “문화유산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연구 시론”, 『우리어문연구』, 36: 603~610, 우리어문학회.
 _____, 2010b, “서사 전략으로서 ‘스토리텔링’의 활용 ‘관광 스토리보드’의 기획과 설계”, 『한국언어문학』, 72: 519~556,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관광공사, 2006, 『관광스토리텔링 그 빛을 발하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2002,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부, 2007, 『근대문화재 문화공간 활용방안 심포지엄』.

원 고 접 수 일 : 2011년 1월 11일
 1차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15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1년 3월 21일